

권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24>

해탈 장자의 법문

미가로부터 남쪽의 주림(住林)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해탈장자를 찾아가서 법을 들으라는 가르침을 받고, 선재동자는 그를 찾아 나섰다. 그를 찾아 길을 가면서 선재동자는 법문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보살의 경계를 항상 생각하였다. 그래서 서원이 견고해서 고답파하는 생각이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갖추었으며, 몸과 마음이 불법을 떠나지 않았다.

선재동자는 12년 동안을 걸어서 마침내 주림성(住林城)에 이르러 해탈장자를 찾았다. 그리하여 차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에게 고백한다.

“저는 이미 아득다라삼삼보리심을 내었는데, 모든 부처님을 섬기고 만나 뵈옵고자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큰 서원을 내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갖추고자 하며 모든 부처님의 여러 가지 행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보살의 수행을 성취하고자 하며,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켜 모두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여, 저는 이러한 마음과 뜻으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원하옵건대 보살이 어떻

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뒤는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때에 해탈장자는 ‘모든 부처의 세계를 거두어 들어서 끝이 없이 회전시키는 다라니(普攝一切佛界無邊陀羅尼)’라고 하는 삼매에 들어갔다. 해탈장자는 이 삼

부처도 내 마음도 실체없이 공한것

인연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청정한 몸을 얻었다. 그리고 그 몸속에서 모든 부처님과 그 국토 그리고 무수한 부처님의 갖가지 모습과 행적을 아무런 장애가 없이 볼 수 있었다. 저 여래께서는 갖가지 대중의 모임, 세간, 태어나는 길, 가족, 육망, 업, 말, 근성, 번뇌와 버릇을 가진 중생을 가운데에서 작은 도량에 있기도 하고 넓은 도량에 있기도 하면서 갖가지 신통, 말, 음성, 법문, 총지문, 변재의 문으로써 여러 가지 불법을 말하였다.

선재동자는 해탈장자가 자신의 몸속에서 나타나 보인 이 모든 여래의 가르침을 듣고 몸이 지닐 수 있었고, 부처님들과 보살들의 부사의한 삼매와 신통변화도 볼 수가 있었다.

이 때 해탈장자가 삼매에서 일어나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래의 결립 없는 장엄해탈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는 삼매 속에서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과 그 도량에 모인 대중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부처님들이 여기에 오신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 간 것도 아니다. 나는 인연세계의 아미타여래를 뵈오려 하면 어느 때나 마음대로 볼 수가 있고,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저 부처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그 곳에 가는

것도 아니다. 모든 부처님이나 나의 마음이 모두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메아리와 같아서 실체가 없고 모두 공한 것이다.

선남자여,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보살은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닦아 부처님 세계를 청정케 하며, 묘한 행을 쌓아 중생을 조복시키며, 큰 서원을 내기도 하고, 온갖 지혜에 들어가 자재하게 윤회하며, 부사의한 해탈문으로 부처의 보리를 얻으며, 큰 신통을 나타내고,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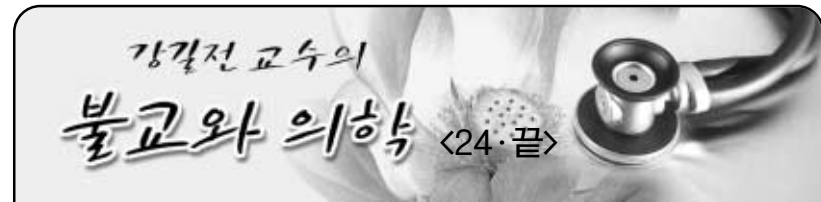
이것이 선재동자가 모든 부처님을 만나 보고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의 경계를 실현해서 나타나 보이고 싶다면서, 가르침을 청한 것에 대한 해탈장자의 대답이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정한 모습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을 따라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에도 장애받지 않는 자유자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모습과 경계를 무궁무진하게 지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해탈장자가 삼매에 들었을 때, 그 삼매의 힘에 의해 청정한 몸을 얻고 그 몸속에서 시방세계의 티끌 수의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처의 경계와 마음의 경계는 결코 둘이 아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스스로 부처의 모습을 짓고 부처의 경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장자는 다음과 같이 선재동자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선남자여, 착한 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탱하며, 진리의 물(法水)로 자기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며, 모든 경계에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다스려라.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하며, 참음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평탄케 하며, 지혜를 증득하여 자기의 마음을 결백하게 하며, 지혜로써 자기의 마음을 명랑하게 하라. 부처의 자재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개발하며, 부처의 평등으로 자기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며, 부처의 열가지 힘으로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살피어 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러한 여래의 결립없는 장엄해탈문에 드나들 뿐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강력전 교수의 불교와 의학 <24> 끝

마음의 주파수

<한마음 요전>에 의하면 마음은 미세하여 그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워도 물리적 에너지와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음이 ‘에너지’라면 그것은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가?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 문헌을 조사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발표한 것인데 마음은 파동이기 때문에 마음의 종류에 따라 그 파동의 진동수가 다르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분노, 질투, 슬픔, 두려움,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파동 진동수와 명랑한 마음, 정직한 마음, 욕심 없는 마음, 모든 사람과 화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등과 같은 긍정적인 마음의 진동수와는

키는 작용을 한다. 다섯째, 인체의 세포 구성요소까지 마음의 부정적 파동이 파급되어 세포의 기능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부정적 마음의 파동은 인체의 각 조직 및 장기 중에서 비수축 주파수와 공명하여 그 조직 및 장기에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이렇다. 노여움은 간, 담도 및 눈과 광명하여 간 질환, 담도 질환, 눈 질환을 야기한다. 걱정은 폐, 대장 및 코와 광명하여 폐 질환, 대장 질환 및 코 질환을, 지 나친 기쁨은 위, 비장 및 혀와 광명하여 심장 질환, 소장 질환 및 혀 질환을 일으킨다. 공포는 순환 계통, 신장, 방광 및 귀와 광명하여 혈액순환 장애, 신 질환, 방광 질환 및 귀 질환을 일으

심은 파동이기에 서로 공명하는 성질 소유

부정적 주파수, 인체 조직·장기에 질병 야기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은 파동이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 대역은 서로 공명하는 성질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마음의 주파수는 첫째, 음식물 속의 중금속과 공명하여 중금속을 몸 속에 침착시키는 작용을 한다. 둘째, 병의 몸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는 작용을 한다. 셋째 뇌의 자율신경, 시상하부, 뇌하수체 등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엔케팔린 및 멜라토닌 등과 같은 여러가지 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 넷째, 인체에 발병을 부리지 않고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휴면 상태의 바이러스, 클라미디아, 진균 및 세균 등을 활성화시

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마음은 에너지이다.’ 혹은 ‘마음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풀이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최근의 문헌들도 고찰하였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말들을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일축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머지않은 시기에 반드시 마음을 중시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음을 측정하거나 마음을 찍는 장치 등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마음주 부터는 서울대 우회중 교수(수의학)가 ‘불교와 생명과학’을 연재합니다.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론' ⑬

간화선의 교학적 기초

간화선의 자구적인 의미는 ‘이야기(語)를 본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관 선포문을 관통하는 핵심된 어구로서 화두를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는 교학적인 측면에서 화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더구나 전혀 간화선의 기반이 전무한 보조 당시의 고려후기 불교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화된 교학적인 이해에 기초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화두의 의미를 돈교와 비교할 수 있다. 돈교는 이름을 떠나고 형상을 떠난,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음으로 정의된다. 이점은 화두의 기능과 유사한 면이 있다. 화두는 일체의 언설과 사유의 길을 끊어버리는 까닭이다. 그러나 끊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만약 끊는다는 생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끊는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까닭이다. 돈교는 끊

는다는 생각이 남아 있기에, 보조의 간화선에서는 돈교를 열 가지 병통의 하나로 치부한다. 이를테면 무자화두의 열 가지 병에서 ‘무(無)’를 절대의 무로 이해한 것은 바로 이런 병에 떨어진 것이다. 있다가 나 없다가나 혹은 어느 쪽도 아닌 절대의

무란 형이상학적인 관념이다. 한편 ‘생각을 떠난다(離念)’는 <대승기신론>의 이해는 돈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형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순하게 생각을 떠난다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부정되는 것은 번뇌이다. 일심 자체는 부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해는 선종

에서도 발견되는 견해이다. 그러나 ‘생각을 떠난다’는 기신론의 연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검토의 대상이다. 만약 번뇌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떠난다는 인위적인 행위로서 정당한 이해가 아니라는 비판이 역시 선종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 역시 이런 관점에 놓여 있다. 번뇌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 착각이며, 무상을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끊는다는 전략은 정당한 정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떠나보낼 수가 없고, 무상인 대상을 끊는 것은 오히려 조율한 평지에 풍파를 일으키는 오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두의 이론적인 기초를 물색하여 보면, 생각을 끊는다는 떠난다는지 하는 돈교나 기신론의 교학적인 이해의 틀로서 해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로 열 가지 선병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기에 있어 돈교와 기신론의 이해

가 선종에서도 중요한 도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화두의 의미를 화엄원교에서 강조하는 법계연기에 기초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다. 화엄의 법계연기는 간화선의 실질적인 기초이다. 대부분의 선승들은 화엄의 기초를 철저하게 배웠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였다. 설사 간화선에서 화엄을 배제한 듯한 발언이 없지 않지만, 결국은 참으로 법계연기를 체득하기 위한 궁여지책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종은 분명하게 화엄종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선종은 화엄의 세계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더욱 철저하게 부처의 출현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바로 간화선의 실천체계이다. 다만 선교일치는 화엄교학에 대한 긍정적 인 측면이 강조되고, 불립문자는 연기설에 대한 부정으로 표출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사상이 아니다. 철저한 교학적인 이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떠남도 역시 불가능하다. 법계연기에 더욱 철저하다면 역시 부처, 진리, 현실을 기피하지만 말고,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드러내고, 역사현장 속에서 개입해야만 한다.

■인경(禪室담연구원장)



작은 스님과 함께 하는 선무도 주말 수련회

새벽 산사의 독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소리, 번잡한 일상과 도시를 떠난, 맑은 공기 속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함과 말없음과 움직임과 고요함, 그 모두에서 나 자신을 찾아 삼매에 듭니다.

시간이 흐르고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 속에서 내밀한 참나(眞我)의 세계가 열리고 연꽃의 향기가 코끝에 밀려듭니다.

지친 심신에 새로운 활기를 주고 싶은 분, 일상의 나른함과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 함월산 굴굴사의 ‘움직이는 선(禪)의 숲길’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 언제: 주말 정기 수련회 - 매주 토요일 - 1박 2일
* 굴굴사·선무도 대학에서는 정부의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단기 체험수련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토·일요일 - 2박 3일)

※ 대상: 10세에서 70세까지의 남·여, 내·외국인(초·중·고 청소년도 참가 가능합니다.)

※ 주말 정기회원의 동참금은 3개월 23만원입니다. 단기 체험수련회원의 동참금은 2박 3일에 6만원입니다.

※ 문의전화: Tel. 054)744-1689, 745-0246 Fax. 054)746-0172,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선무도 대금강문 선무도 대학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굴굴사

찾아(전화)온 시간만 보면 그사람의 모든 것을 미리알고 먼저 말할 수 있는 활인천역사(스님·오행가·신명제자·기수련자·한의)의 필수비기서!

묻는 것은 항목별로 답이 써져있고, 매일 매일 한장씩 꺼내 보고 넣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수정보완본	2,500,000
■ 일어판	2,720,000
■ 육임강의록 上, 下	410,000
■ 육임휴대용	310,000
■ 육임신수비결	300,000
■ 육임비디오(28개)	900,000
■ 육임속성강의 (교재드림. 매주금요일 오후 5시 3시간)	1,500,000
■ 육임래정비법 CD	2,000,000

문의 02)993-8680

간(肝)이 **염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 삶은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미술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용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서 묻어둔 빈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더 들어가 기가끼 꼬챙이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